

전남·부산·경남 광역협의체 뜬다

20일 협약... 내년 초 '남해안상생발전협의회' 출범

북방물류 활성화 등 광역벨트 시동... 공동발전 주목

전남과 부산·경남 등 영호남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남해안상생발전협의회'가 출범한다. 영호남 3개 광역단체가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해안광역경제벨트 조성 등 상생발전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 등 3개 시도는 오는 20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남해안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당시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간 맺은 상생협약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남해안권 상생협력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남해안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의 첫 단추다.

당시 협약 이후 3개 시도는 4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협의회 구성 계획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3개 시도 단체장들은 해양·항만·교통·문화·관광·도시재생·복지 등 각 분야에서 남해안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뜻을 모을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남해안 광역경제벨트 구축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반영 공동 협력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우선 추진 ▲북방 물류 활성화 공동 투자 및 협력 강화 ▲문화·관광·교통·도시재생 등 지역균형발전 위한 협력과제 지속 발굴 및 정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반영 추진 등이다.

이중 영호남의 오랜 숙원인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목포·부산에 있는 남해안철도 중 미개설 구간인 목포·보성·전철·진주-마산-부산까지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 남해안 상생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3개 시도는 협약식 이후 각 실·국별 남해안권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 상생발전협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어 3월 전남도 주관으로 '제1회 남해안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 2회 정기회를 비롯해 현안 발생시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산 기자



눈내리는 전남대 캠퍼스 광주·전남지역에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며 아침부터 눈과 비가 내린 11일 오전 전남대에서 두꺼운 방한복 등으로 중무장한 학생들이 눈을 맞으며 등교를 서두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 신생기업 80% 5년 못 버틴다

2년 생존률 20%대 그쳐... 숙박·음식점업 폐업 도미노

광주·전남지역 신생기업들이 증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내 신생기업 10곳 중 8곳이 '생존기간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는 2년 연속 '신생기업 생존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의 '2017년 기준 기업생명 행정통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창업한 후 1년 이상 생존한 기업 비율은 64.1%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2년이

상 생존률은 48.8%로 절반도 넘지 못했다. 3년·4년 생존률도 각각 38.7%·30.6%로 나타났다. 5년 이상 버틴 기업은 25.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신생기업은 2만 4,448개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소멸기업은 1만 7,785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6년 기준 폐업한 숙박·음식점업은 4,433개로 집계됐다. 경

기 불확실성에서 출발한 소비위축으로 인해 전통적인 서비스업계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의 신생기업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전남에서 1년 이상 생존한 신생기업은 64.8%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지만 '2년차'를 접어들면서 생존률은 49.5%로 크게 떨어졌다. 5년 이상 생존한 기업 또한 27.2%에 불과했다.

생존률이 낮음에도 전남의 신생기업은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신생기업은 2만 7,595개로 1년 전과 비교해

344개 늘어났다. '폐업 또는 소멸한 기업'은 1만 9,962개였다. 소멸한 기업 중 5,390개는 숙박·음식점이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창출력이 없는 '1인 기업'이 81만 8,501개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전체 신생기업의 89.6%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멸기업의 91.6%가 '1인 기업'이었다. 또 지난해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605만 1,000개로 전년 대비 27만 5,000개 (4.8%) 증가했다. /송수영 기자

“광주형 일자리, 시대정신 믿고 추진”

이용섭 시장 간부회의서 강조

이용섭 광주시장이 11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일부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시대정신과 시민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화요 간부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자체 주도형 노사상생 모델이

라서 예기치 못한 난관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모델인 독일 ‘아우토 5000’이나 미국 GM의 ‘새턴 프로젝트’는 기업의 제안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노동계만 설득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어 기업과 노동계 양쪽을 모두 설득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격하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민간공원 2단계 평가 결과 유출... 13일 감사결과 발표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이 출발부터 비리에 휘둘리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유출된 사실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1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시 공무원과 업체 등

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평가결과 유출 등 일부 비위를 확인했다.

감사위는 12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전에 업체들의 이의제기를 받아 반영함으로써 감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감사위는 업체의 이의제기를 받은 뒤 오는 13일 오전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나 비위에 대해 수사 의뢰 여부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감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정에서 일부 탈락업체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위는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심사위원 선정 과정부터 평가결과까지 내부 행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에 대한 계량 평가 결과 유출 여부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애란 기자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포함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